

코로나, 폭염 잠시 잊고 지구촌 낭만여행

광주문화재단, 8-12일 'DJ와 함께 떠나는 한여름의 세계 음악여행'

재즈, 블루스, 포크, 컨트리 등 매력적인 아메리카 음악 선율을 즐길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은 8일-12일 빛고을뮤지컬페스티벌 'DJ와 함께 떠나는 한여름의 세계 음악여행'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2020년부터 진행된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 브랜드형 기획 프로그램이다. 광주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선정, 지원받아 진행되고 있다. 올해 빛고을뮤지컬페스티벌 역시 지난 2년 동안 프로그램 총괄연출을 맡았던 문화기획자 장용석 예술 감독이 참여한다.

국내 최고의 라인업으로 구성된 음악 단체가 재즈, 블루스, 포크, 컨트리 등의 매력적인 아메리카 음악을 들려준다.

아울러 지역 최고의 인기 DJ 문형식의 해설이 어우러져 시민들에게 시원한 한여름밤의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 재즈씬에서 주목받고 있는 엔디그 트리 오가 8일 페스티벌의 막을 올린다. '재즈, 아메리카의 영혼 I'을 주제로 대중적이면서도 예술적인 미국 정통 재즈를 연주한다.

이어 9일 대한민국 포크 음악의 선구자인 이정선 밴드가 '포크, 민중의 음악'이라는 주제로 관객들에게 포크 음악의 정수를 선사한다.

10일에는 색소포니스트 박수용이 이끄는 재즈 오케스트라 빅밴드가 '재즈, 아메리카의 영혼 II' 무대를 펼치며, 11일에는 국내 유일의 컨트리 음악 밴드로 많은 팬들을 갖고 있는 컨트리 공방이 '컨트리, 민속에서 팝으로'란 주제로 컨트리 음악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다양한 음악을 선보인다.

마지막 날 공연인 12일에는 국내 블루스 음악을 대표하는 독보적인 뮤지션 김목경 밴드가 대중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사운드를 통해 '블루스, 경계(境界)의 음악'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장용석 예술 감독은 "이번 빛고을뮤지컬페스티벌은 코로나19로 인한 상처와 상실감, 피로감 등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위로와 힐링을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출발했다"며 "코로나19를 이겨낸 광주 시민과 침체된 공연 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구촌의 음악, 세상의 다른 장르의 음악을 시민들과 함께 향유해보는 위안과 힐링의 시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위부터 시계방향 '빅밴드' '이정선 밴드' '컨트리공방' (광주문화재단 제공)



여성 솔리스트 단체 '일 페아프로' (광주문화재단 제공)

'일 페아프로'...평화로의 여정

광주문화재단 오늘 월요콘서트

한여름 밤을 수놓을 아름다운 성악 공연이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은 8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평화로의 여정'을 주제로 월요콘서트를 연다.

이번 공연은 바로크부터 근현대까지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성악곡으로 구성됐다.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감동적인 공연이 준비돼 있다.

이날 무대에 나서는 공연단체 '일 페아프로'는 무대에서 차별화된 실력과 색깔을 지닌 여성 솔리스트 앙상블로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에서 수년 동안 유학하고 유럽의 각종 콩쿠르와 무대에서 공연을 해왔다.

'일 페아프로'는 클래식적 정통성을 지키면서 관객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리와 무대를 만들기 위해 항상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연구하고 노력하는 단체다.

공연 출연진은 소프라노 김진희·안운유·이지연·서혜원·최효리, 메조소프라노 전진·김혜원, 피아노 박지현, 클래식식기타 박두규다.

월요콘서트 공연은 선착순 100명이며, 관람 신청은 사전 전화 예약하면 된다. 문의 062-670-7926. /최명진기자

'매화마당품속으로'

정윤태 개인전...15일까지 목포성옥기념관갤러리

정윤태 작가의 4번째 개인전 '매화마당품속으로'가 지난 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목포성옥기념관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정 작가는 최근 매화 향기에 젖어들어 청자색을 담아 조형 공간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이야기를 펼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남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동네, 웅기종기 모여 사는 삶의 따뜻함을 화선지에 수놓았다.

유달산 자락 아래 다닥다닥 붙어 목포 앞바다를 굽어보는 동네, '다순구미마을'에 둘러 짚기 가득한 바다 내음과 여겨저기 모여 사는 동네를 겨울의 향기를 담아 따뜻하게 표현했다.

정겹고 따뜻하기로 유명한 이 동네에서는 겨울이지만 웅기종기 모여서 담소



를 나누는 가족 이야기와 집에서 뛰쳐나와 눈싸움할 것 같은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하도록 표현했다. 기울어진 산비탈, 발갈이를 해 놓은 듯한 땅과 돌들이 푹푹 박혀 있는 자리에 위태롭게 들어 섰지만 파스하게 비치는 겨울 햇살이 평화로운 동네의 토박이를 느끼도록 이야기한다.

정 작가는 남도의 향수를 영원히 담을 수 있는 그림을 표현해 주변의 향기를 남기고자 했다. 도시 개발로 점점 사라져가는 역사의 현장을 그림으로 재생해 남기고 싶은 예술혼이 있다.

홍익대학교 대학원 출신인 정 작가는 한국미술협회 정기전을 포함해 130여회의 전시활동을 했으며 목포대 미술학과 출강과 대한민국문화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목포=정해선기자

문인화 지일령·수채화 안수경 大賞 영예

제35회 광주시미술대전 수상작 선정...31일부터 광주비엔날레서 전시



문인화 대상 지일령 작 '그리움으로 피워낸 흥매'

제35회 광주시미술대전 수상작이 선정됐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미술협회가 주관한 올해 미술대전에서 문인화 부문 지일령 작가의 '그리움으로 피워낸 흥매', 수채화 부문 안수경 작가의 '영원-1333(1)'이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행사에는 15개 부문에서 참가작 1천 739점이 출품돼 대상 4점, 최우수상 21점, 특선 267점, 입선 683점 등 총 975점이 상을 받았다.

올해는 예년과 다른 운영 방식을 적용한 ▶입상자 명단 본보 홈페이지 참조

점이 눈길을 끈다. 먼저 작품의 공정과 투명성을 위해 서예, 문인화, 캘리그래피 부문에서 현장 회호를 실시했다.

또 수상작 글씨 오류 방지를 위해 서예 한문 부문 감수를 진행했다.

아울러 올해 신설된 대학부 공모는 미술관 관장 및 문화 기획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대학부 대상은 서양화 부문 유수연 작가의 '한 발자국 내딛을 때'가 수상했다.

서예 부문에서는 박남주의 '관교선생시구'가 대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31일 오후 3시 광주비엔날



수채화 대상 안수경작 '영원-1333(1)'

레 전시관에서 열리며, 입상작 전시는 시상식날부터 6일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최명진기자

방치된 묘지 70%(추정)

매장 → 매장
매장 → 봉안
매장 → 수목장

· 오랜 경험과 노하우!
· 탁월한 기술력과 정직한 가격!
· 광주·전남 어디서나
전화 한통으로 이장고민 해결!

묘지이장/관리 전문업체

"날짜 택일에서 화장장 예약, 안치까지, 정성을 다하여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마침표

여름철 비수기 특별할인! **광주묘업** ☎ 010-8674-1037